

## 코리아컵 출전 해외마들, 관리는 어떻게?

## 방역·격리·수송...해외 명마 모시기 '007 작전'

내달 10일 코리아컵...해외 경주마들 방한 입국 동시에 방역...국가별 6구획으로 격리 마사회, 수송·시설·관리용품 전방위 지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외국인의 한국 체험기를 다룬 TV 예능프로그램처럼 외국 경주마들이 한국에 온다. 한국경마 최고의 축제, 성급 다가온 제2회 코리아컵(GI) 국제경주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9월10일 랫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일본 싱가포르 UAE 홍콩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미국 등 초청국 경주마들이 한국땅을 밟는다. 1800m 장거리 경주인 코리아컵 상금은 10억원, 1200m 단거리 경주 코리아스프린트 상금은 7억원으로 도합 17억원 상금이 걸린 한국경마 최고 규모의 국제 경주다. 외국에서 온 비싼 몸값의 경주마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 ●철저한 방역...입국 순간부터 사수하라

한국마사회는 초청한 경주마들이 좋은 경주를 펼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 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첫 번째로 꼽는 것은 방역. 위생 환경이 각각 다른 국가에서 경주마들이 오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 있다. 입국하는 순간부터 철저한 관리에 들어간다. 외국에서 오는 코리아컵 출전 경주마들은 수출·입 검역시행장을 나라별로 다르게 지정됐다. 국가검역당국 검역관의 승인 없이는 말도 사람도 출입을 금지한다. 정해진 구획별로 국제검역마사를 분리하고, 놀이 운동이나 조교 시에도 각 구획별로 시간대를 나눴다.

한국마사회는 출전 경주마나 말 관계자들이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영국·프랑스·아일랜드 등 같은 유럽군을 1구획으로 묶고,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도 따로 분류해 참가국을 모두 6구획으로 나눠 격리한다. 코리아컵 출전 경주마의 최종 확정은 8월말이나 이뤄지지만, 미리 구획을 나누고 준비해야 국제검



해외 원정 경주마는 긴 수송시간과 낯선 환경 적응에 부담이 크다. 제2회 코리아컵 국제경주를 앞둔 한국마사회는 이러한 경주마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철저한 방역과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역마사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 한국마사회 방역관리담당 임형호 차장은 “각 구획마다 방역 물품이나 설비, 국가당국 지정승인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며 준비에 한창이다.

## ●최상 컨디션 위해...아낌없이 지원하라

동물 중에서도 섬세하기로 소문난 말에게 긴 수송시간과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해외 원정 경주는 큰 부담이다. 수송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수송열 등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보통은 수액 처치 등 집중치료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3일 전인 최종 출전 신청 전까지 회복하

지 못하면 경주에 참가하지 못한다.

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국제경주 개최국의 노력은 눈물겹다. 한국마사회는 코리아컵 참가 경주마의 수송비용과 시설을 지원할 뿐 아니라, 마장구를 제외한 모든 말 관리 및 마사 관리용품을 지급한다. 스펀지·브러시 등 말의 수장 도구부터 사료, 깔짚, 마장구 세척을 위한 세탁기와 냉장고 등의 편의시설도 포함된다. 물론 참가국에 따라 개별적으로 준비한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특별히 공급하고 싶은 영양제나 약품이 있다면 경마수의담담판에게, 사료첨가제는 서울경주자원관리부의 사료

첨가제 담당자에게 사전 신고해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받아야 한다.

필요하면 별도의 마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데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이 모두 다르다. 한 국가에게만 특정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이후 다른 참가국도 비슷한 요청을 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지난해 일본이 경주마의 물갈이 설사를 우려해 말에게 쌀 생수를 요청한 적이 있다. 말에게 필요한 생수 양이 워낙 많아 상당한 예산이 소모됐다. 당시 관계자들은 혹시 다른 나라도 생수 제공 서비스를 요청할까 조마조마 마음을 졸였다는 후문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 돌아온 황태자 문세영 복귀 첫날부터 V 신고



문세영 기사

황태자가 돌아왔다. 5월부터 3개월간 싱가포르의 마사회인 '싱가포르 터프 클럽'(Singapore Turf Club) 단기 면허를 받아 크란지(Kranji) 경마장에서 활동했던 문세영 기수가 국내 복귀 첫날부터 승리를 신고했다. 문세영 기수의 의지와 한국마사회의 노력으로 이뤄진 '한국 기사 최초 싱가포르 진출'이라는 성과가 곧바로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난 셈이다.

8월12일 랫츠런파크 서울 제3경주부터 기승한 문세영 기수는 이를 전인 10일부터 조교를 시작한 영향인지 첫 기승 성적은 썩 좋지 못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불식시키듯 복귀 후 네 번째 출전인 제6경주에서 승리를 기록하며 '역시 문세영'이라는 감탄을 자아냈다.

제6경주(1200m)는 쉽게 우승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었다. 당일 제3, 제5경주에서 승리한 유승완 기수가 '헬빙조이'(한국, 3세, 거)를 타고 출전해 경쟁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라운딩탑'(한국, 3세, 거)과 함께 2번 출발대에 들어선 문세영 기수는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다. 시작과 함께 1마신 차로 치고나간 이후 단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200m 정도를 남겨둔 상황에서 2마신 차, 그리고 결승선에서는 3마신까지 후발주자들과 격차를 벌리며 통과했다. 최종기록은 1분13초9.

이제 경마팬들의 관심은 문세영 기수가 9월 10일 출전한 예정인 제2회 코리아컵(GI), 코리아스프린트(GI)에서 어떤 경주마와 호흡을 맞추고, 성적은 어떻게 될지이다.

정용운 기자

## 20일 서울 7경주 자기 메모리얼 경주

20일 '자기 메모리얼 경주'가 랫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혼3등급, 1400m, 연령오픈)로 열린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 경주는 레이스 중 볼의의 사고로 고인이 된 기사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한국마사회 랫츠런재단과 한국경마기수협회가 함께 800만원의 매칭펀드를 조성해 유훈장학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이 중 300만원은 한국경마기수협회가 당일 시행하는 11개 경주 순위상금 일부를 모아 조성한다.

## 20일 서울 9경주 브리즈업 경매 특별경주

20일 한국마사회 랫츠런파크 서울에서 제9경주로 '브리즈업(Breeze-Up) 경매 특별경주'(국 OPEN, 1200M, 2세, 상금 1억5000만원)가 열린다. 출전 자격은 브리즈업 경매 낙찰마로 본 브리즈업 기록이 있고 해당 경매에서 최종 낙찰된 경주마다. 브리즈업 경매는 경주마들이 200m를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보고 경매 참가자들이 경주마의 잠재능력을 확인해 구매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주행습성, 자세, 스피드 등 경주마 데뷔를 위한 육성조건 수준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경매전진국에서는 2세 경주마 경매시 적용하고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다크호스 '청담도끼'냐, 베테랑 '언비터블'이나

1등급 신예마의 상승세가 이어질까? 랫츠런파크 서울 1등급 경주마의 최근 판도는 신예 3~4세마가 쥐고 있다. 20일 한국마사회 랫츠런파크 서울 제10경주(1등급, 2000m, 연령오픈)도 신예 강자의 활약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1등급으로 데뷔하는 3세마 '청담도끼'가 유력한 우승후보. 하지만 이에 맞서는 관록의 경주마 '소통시대', '언비터블'도 만만치 않다.

## ●청담도끼(미국, 3세, 거, R95)

이번 출전으로 1등급 데뷔하는 유일한 3세마다. 8번 출전해 한 번도 순위상금을 놓친 적이 없는 출중한 역량을 지녔다. 7월 2등급으로 승급된 지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1등급으로 올라

갔다. 2000m는 첫 출전이나 장거리 성적이 좋아 기대할만 하다. 직전 참가했던 1800m 장거리 경주에서는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고 무려 17마신차(1마신=2.4m)로 우승하는 '와이어투와이어'(경마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내내 1위를 지키며 우승하는 것)를 보여주었다.

## ●소통시대(한국, 6세, 거, R104)

출전할 때마다 유력마로 거론되는 서울 대표 국산마다. 전형적인 주입마로 7월에 열린 서울 경제신문배 대상경주에서 멋진 주입을 선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당시 결승선 부근에 거의 다른 순간 '무후대제'를 코 차로 제치며 우승했다. 2000m에 6번 출전했으며 1번 우승, 2번 준

우승을 했다.

## ●언비터블(미국, 7세, 수, R105)

경주마로는 고령이라고 할 수 있지만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다. 올해 출전한 1등급 경주가 모두 2000m였고, 그때마다 순위상금을 쟁겼다. 출전마 중 2000m 경합이 15번으로 가장 많다. 최고 기록도 2분7초6으로 출전마 중 제일 좋아 당일 컨디션이 관건이다.

## ●한마(한국, 4세, 수, R96)

유명 씨수마 '메니피'의 자마로 떠오르는 국산마다. 15번 출전해 7번 우승하고 연승률이 80%에 달한다. 2000m 출전 경험은 없지만 작년

20일 랫츠런파크 서울 제10경주 신구 격돌 6세마 '소통시대' 4세마 '한마'도 초미 관심

부터 장거리 경주에서 4위 밖으로 떨어진 적 없을 정도로 성적이 꾸준하다. 그동안 핸디캡 경주로 고부담 중량에 다소 부진했으나, 이번 경주에서는 경쟁마에 비해 낮은 52.5kg의 부담중량을 부여받아 기대가 높다.

## ●신데렐라맨(한국, 6세, 거, R103)

2016년 6월 경주 후 1년 만에 돌아왔다. 전성기 시절(2014.12.05~2015.4.19) 5연승을 하기도 했다. 2015년 그랑프리(GI)에서는 최고 인기마에 선발됐다. 주입력이 돋보이는 장거리 적성마로 2000m에 4번 출전해 우승 1번, 준우승 1번을 차지했다. 길었던 휴양 기간을 극복하고 예전 기량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정용운 기자

## 스포츠 토드

## “넥센 8~9점-롯데 4~5점” 최다 득표

(9)케이토도는 18일에 열리는 2017시즌 한국프로야구(KBO)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도 스페셜 77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3경기 넥센-롯데전에서 45.94%가 넥센의 우세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롯데의 승리 예상은 39.80%였고 나머지 14.25%는 두 팀의 같은 점수대를 전망했다. 최종 점수대로는 넥센(8~9점)-롯데(4~5점) 항목이 1순위(5.12%)를 차지했다.

넥센은 18일 베네켄이 선발로 나설 확률이 높다. 베네켄은 올 시즌 16경기에 선발 등판해 6승 6패 평균자책점 3.80을 기록하며 팀의 간판 투수로 활약하고 있다. 롯데는 송승준이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1경기 두산-KIA전에서는 45.49%가 KIA의 승리를 예상했고, 39.50%는 두산의 승리에 투표했다. 나머지 15.02%는 두 팀의 같은 점수대를 선택했다. 최종 점수대에서는 두산이 2~3점, KIA가 8~9점을 기록할 것(4.69%)이라는 예상

이 최다를 기록했다. 마지막 2경기 kt-삼성전에는 47.14%가 원정팀 삼성의 승리를 내다봤다. 홈팀 kt의 승리는 37.83%, 같은 점수대는 15.04%로 나타났다.

## 야구토도 스페셜 77회차 투표를 중간집계

| 경기번호  | 1경기           |       | 2경기           |       | 3경기           |       |
|-------|---------------|-------|---------------|-------|---------------|-------|
| 홈-원정  | 두산 vs KIA     |       | kt vs 삼성      |       | 넥센 vs 롯데      |       |
| 경기일시  | 8.18(금) 18:30 |       | 8.18(금) 18:30 |       | 8.18(금) 18:30 |       |
| 순위    | 점수대           | 투표율   | 점수대           | 투표율   | 점수대           | 투표율   |
| 1     | (2~3)-(8~9)   | 4.69% | (4~5)-(6~7)   | 6.56% | (8~9)-(4~5)   | 5.12% |
| 2     | (6~7)-(8~9)   | 4.46% | (4~5)-(2~3)   | 5.77% | (4~5)-(6~7)   | 4.93% |
| 3     | (4~5)-(6~7)   | 4.41% | (2~3)-(6~7)   | 4.98% | (8~9)-(2~3)   | 4.75% |
| 홈팀 승  | 39.50%        |       | 37.83%        |       | 45.94%        |       |
| 같은점수대 | 15.02%        |       | 15.04%        |       | 14.25%        |       |
| 홈팀 패  | 45.49%        |       | 47.14%        |       | 39.80%        |       |

\* 게임방식 : 3경기 6게임(또는2경기 4게임) 최종 스코어 맞추기  
\* 표기방식 : 0~1점, 2~3점, 4~5점, 6~7점, 8~9점, 10+(10점 이상) \* 발매마감 : 2017. 8. 18(금) 18시 20분

최종 점수대로는 kt가 4~5점대, 삼성이 6~7점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1순위(6.56%)로 집계됐다.

야구토도 스페셜 77회차 게임은 8월 18일 오후 6시 20분에 발매가 마감된다. 경기가 모두 종료된 뒤 적중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 소액으로 즐기는 스포츠토도 '100원의 행복'

스포츠팬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로 자리 잡은 스포츠토도의 인기비결이 소액구매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도)의 수탁사업자 케이토도는 “100원부터 참여가 가능한 소액구매 시스템이 고객들이 느끼는 스포츠토도의 가장 큰 매력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실제로 프로야구 2~3 경기를 대상으로 최종 득점을 맞히는 야구스페셜 게임의 최근 구매금액의 경우 참가자들의 매 회차 평균 참여금액이 4000원대였다. 이처럼 적은 금액으로도 최고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이 밖에 축구스페셜, 야구스페셜 등 인기게임 대부분의 1인당 평균구매금액 역시 1만원 이하로 나타나, 소액으로 참여하고 스포츠를 더욱 즐겁게 관전하는 스포츠레저 문화로서 스포츠토도가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전하고 즐거운 여가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스포츠토도는 더욱 건강한 게임문화 형성을 위해 구매자들에게 소액구매를 권장하고 있다. 1인당 구매금액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

용하고, 스스로 게임 몰입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가진단테스트'서비스를 제공해 과도한 게임 몰입을 사전에 방지한다. 구매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구매금액과 회차의 한도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기에 건전하고 즐겁게 토도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케이토도는 “부담 없는 금액으로 참여하고 경기를 더욱 즐겁게 관전하는 스포츠레저 문화로 스포츠토도가 자리 잡고 있다. 발행게임 가운데 참가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토를 포함해, 각 종목의 스페셜, 매치 게임들의 최소 투표 금액은 100원이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토도/프로토) 이외 모든 유사 스포츠베팅 행위는 '불법스포츠도박'이며, 이를 이용할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불법신고] 1899-1119  
www.cleansports.or.kr  
공식발매사이트 www.betman.co.kr

## 야구토도 승1패 20회차 발매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수탁사업자 케이토도가 22일 벌어지는 한국프로야구(KBO)리그 5경기와 미국프로야구(MLB) 8경기, 일본프로야구(NPB) 1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야구토도 승1패 20회차 게임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KBO에서는 22일 오후 6시30분에 시작하는 넥센-삼성(10경기)전부터, LG-NC(11경기), SK-두산(12경기), KIA-롯데(13경기), kt-한화(14경기)전까지 5경기가 야구팬을 찾아간다.

MLB에서는 시카고화이트삭스-미네소타(1경기)전을 시작으로, 피츠버그-LA다저스(2경기), 볼티모어-오كل랜드(3경기), 뉴욕메츠-애리조나(4경기), 클리블랜드-보스턴(5경기), 애틀랜타-시애틀(6경기), LA에인절스-텍사스(7경기), 샌프란시스코-밀워키(8경기)전까지 모두 8경기가 선정됐다. NPB에서는 나고야돔에서 열리는 센트럴리그 5위 주니치와 4위 요미우리의 맞대결이 9경기에 뒤흔다.

이번 야구토도 승1패 20회차 게임은 21일 밤 9시50분까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경기가 종료된 뒤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